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5월 19일(금)
(음력 4월 24일)

Пятница

19 мая 2017 г.

№ 19(11673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1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제6회 러시아국제컨벤션. 코위너 이사진들과 사할린팀의 기념사진. 관련 기사 2면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올해 남쿠릴·일본 간 무비자 방문 시작

5월 15일 쿠릴섬 쿠나쉬르에 올해 첫 무비자 일본 대표단(59명, <전 주민 연합> 회원)이 방문했다. 이들은 별도의 문화행사 없이 전에 쿠릴섬들에서 살던 일본사람들의 흔적과 묘지 등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본 후 18일 아침 일본 <네무로> 항구를 돌아갔다. 다음으로 일본인 60명을 태운 배가 19일 쿠나쉬르에 입항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정부 간 협정에 따라 쿠나쉬르, 이투루프 등 쿠릴열도에 일본 주민들은 무비자로 통행하고 있다.

제15 <사할린 건축엑스포>박람회 개최

5월 24-25일 양일간 <스틀리차>무역비즈니스센터에서 제15회 <사할린건축엑스포>전문박람회가 개최된다. 포럼에는 사업가, 건설 분야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주택 개조나 매매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전시회에서는 국내외의 고급 건축, 기계와 장비가 소개될 것으로 보이며 박람회에는 사할린주, 스웨르들롭스크주, 하바롭스크 변경과 연해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지역 건축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5월 20일 시마 어획 착수

5월 20일부터 사할린에서 시마(연송어 종류) 어획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주 소하성어류 어획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서부 사할린 지역에서 시마는 포기비갑부터 크릴리온갑까지 잡을 수 있으며, 어획량은 4.61톤으로 정해졌다. 동부 사할린지역으로는 류도가, 탐볼카와 우롭 강에서, 바닷가에서는 아니와망, 아니와 갑부터 제르페니야 갑까지 수역장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민, 주말 시장박람회 초대

주중양도시 시민들을 주말 박람회에 초대한다. 금, 토, 일 승리광장 주변에 시민들을 위한 주말시장이 열리는데 업무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다. 금요일에는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의 제품(생선과 해산물)을 생산자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토·일에는 대규모의 박람회가 열린다. 농장, 수산업체들의 제품 외에도 이곳에서 꿀, 나물과 채소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주말시장은 11월 19일까지 개장한다고 알려졌다.

사할린, 북한 파견노무자 사망

지난 주, 금요일, 토마리중양구역병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작업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5월 10일 사할린에 도착한 31세의 이 남성 노무자는 한 건축회사에 채용되었다. 토마리시 한 주택 공사장에서 작업도중 그는 3층에서 떨어져 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밤 10시경 그는 숨졌다.

현재 이 사건은 조사 중으로 검사 후 노동안전에 대한 회사 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사할린주, 2016년 예산 집행 공청회 열어

지난 16일(화) 사할린주정부에서 2016년 사할린주 예산 집행에 관한 법 초안에 따른 공청회가 소집된 가운데 주 집행기관 간부, 주두마 의원, 사회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 행사는 바로 인터넷 온라인과 TV로 생방송되었다.

공청회를 연 사할린주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2016년 예산의 주요 지표를 상기시키며 수입액은 1378억 루블리, 지출액은 1410억 루블리로 적자액은 32억 루블리였다고 보고했다. 가장 많은 수입(2013억루블리)이 있었던 2015년에 비해 주예산 수입액은 696억루블리(35%)로 감소되었다. 이는 <사할린-1>과 <사할린-2>프로젝트 제품분배 협정으로 지급액이 거의 2배 감소된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주예산의 주요 수익의 72%였던 석유가스 부문의 수입액은 950억 루블리에 해당했고 석유가스와 관련되지 않은 수익은 오히려 48억 루블리로 증가했다.

주예산은 적자였지만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는 큰 영향을 주

지 않았다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2016년에 사회문화 분야에 580억 루블리를 지급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44억 루블리 더 많았다. 보건, 교육, 사회정책 분야에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

182억 루블리는 의료진 임금, 의약품 구입, 진료소와 병원 의료설비 설치를 포함하여 무료 의료지원에 할당하여 의료인력유치 문제해결에 많은 것을 해냈다.

교육 분야에는 174억 루블리를 지급하여 교과서와 교육시설 설비를 구입하고 학교 24개소와 유치원 2개소를 개건하고 내부를 정비했으며 새 통학버스도 구입하고 유치원 7개소를 완공했다.

사회적 지원금과 특혜 지원에는 2016년에 150여억 루블리를 할당하여 30여만 명의 시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는 사할린주 인구수의 절반 이상이다.

그 외에도 체육 및 스포츠, 문화 분야 발전에 투자하고 주택공공경리 분야에도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섬지역에서 도로 65킬로미터 공사

와 주택 단지 내 영역도 수리가 이루어졌고 사할린주는 <아에로플로트>항공사와 공동으로 <아브로라>항공사를 위해 항공기 5대를 구입했다.

지역 식량안전보장에도 중점을 두어 최근에 여러 농장들이 확산되고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제품 등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출생률도 높아지며 사망률이 낮아지고, 다자녀 가족 수가 증가되고 있다.

코제마코 주지사는 앞으로도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실행에 집중하여 교육·보건·문화·사회복지 분야와 넓은 주택 철거 사업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도로·학교·병원·스포츠시설 등 개건·공사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예산분야 근로자 임금인상, 준공된 주택들의 질적인 문제, 일반학교 2교대 문제 등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날 공청회 참가자들은 2016년 주 예산 집행 법안을 다수가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본사기자)

새고려신문 2017년 하반기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하반기(7-12월)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1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세계 한민족여성재단 (KOWINNER)이 주최한 제6회 국제컨벤션이 열렸다.

이날 환영만찬에서 코위너 이사장 이경희 씨는 "2007년 출범된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은, 전 세계 여성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10년간 한민족여성의 지위향상과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확대, 국제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적, 분야별 교류를 지향하며, 차세대 인재양성 및 사회복지 장학사업, 도서출간, 그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체로, 보조협력기관으로, 여성인력, 지도자 양성사업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12일 아침 9시부터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가진 공식개막식에는 사할린주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축하를 했다. 사할린주두마 블라지미르 예프레모브 의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러시아 외무성 블라지미르 노소브 사할린 대표, 주두마 의원이며 <러시아여성연맹> 사할린 지부장인 나탈리아 코르슈노와 등은 한국, 호주, 미국, 중국, 브라질, 스위스를 비롯하여 세계 12개국에서 온 100여명의 한인여성들을 따뜻히 환영하여 의미있는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했다.

이날 오전 프로그램은 <사할린한인>주제로 진행되고 오후 프로그램은 특강으로 이어졌다.

사할린동포 2세 장태호 씨가 작사한 <멀고도 가까운 한국>곡 뮤직 비디오가 상영된 후 진 울리아의 역사학 박사가 <사할린한인 디아스포라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주제로 비극적인 사할린한 인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였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제6회 러시아 국제 컨벤션에서

'융합, 도전 그리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한인여성 100여명 사할린에서 모여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장은 사할린한인 귀국문제를 발표하면서 아직까지 사할린한인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후 사할린 1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왔다. 일제 때 강제동원 당한 93세의 김윤덕 옹의 강제노동에 대한 얘기와 장차분 할머니의 40-50년대의 어려운 시기의 이야기가 각 참가자에게 와닿았

을 거라 생각한다. 사할린국립대학 한국어과장 임 엘위라 교수는 <사할린에서의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어교육> 주제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김춘자 우리말방송 국장은 <사할린한인의 오늘>주제로 발표하여 현지 한인 현황과 성공 2세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말방송이 제작한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여러 비디오자료도 상영됐다.

오후 특강 주제는 다양했다. 발표자 모두가 재미있게 강연을 진행했으며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도 했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은 <여성의 지위와 북한인권의 실태>문제를 발표하여 이 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손숙 한국 연극배우, 전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여성의 운명, 위치, 지혜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했다.

중국 북경에서 온 애심여성 네트워크 전국 명예의장인 이란 씨는 중국 조선동포들의 역사와 현황, 인물 등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중국동포들의 역사가 어느 정도 사할린동포 역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코위너 창설 멤버인 이란 여사의 중국동포에 대한 자부심과 동포애가 넘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마지막 강연은 미국에서 온 교육학 박사이며 교육 컨설턴트 오수지 씨가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카리스마 넘친 오 교육자는 "교육은 국경이 없다" 라면서 글로벌 시대의 교육에 대한 기초 연설을 했는데 참가자 모두가 귀를 기울여 한 마디도 빼놓지 않도록 했다. 강연 후에는 많은 여성들이 강연 내용을 받아보라고 했다.

세계한민족재단 컨벤션에서는 꼭 분과별 네트워킹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많은 인사로서 아침 개회식이 길어지자 그렇지 않아도 짝짝한 세션 프로그램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저녁에는 코위너 축제가 펼쳐졌다.

공연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 표창장과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경희 이사장은 특히 이번 사할린 컨벤션 공동위원장을 지낸 재단 이사인 권행자 씨와 김춘자 씨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차기 회장 서진화 씨의 취임식도 있었다.

또 이경희 이사장은 다음 컨벤션은 2019년에 브라질에서 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축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학생들의 무대와 김경호 가수의 공연, 컨벤션 참가자 장기자랑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국팀이 다양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팀은 판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반주 없이 한국노래를 불러준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김웨철 씨에게 모든 참석자들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가자, 사할린으로-융합, 도전, 그리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벤션의 목적은 다소 이루어진 듯하다. 아쉬운 게 있다면 교류의 시간이 좀 짧았다는 점이다.

다음날 컨벤션 참가자들이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을 비롯 사할린의 여러 명소 현장을 돌아본 후 일부 참가자는 귀국하고 일부는 14일 모스크바 여행을 떠났다.

(취재: 글/ 배순신기자 사진/ 이예식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학생들, <2017 학생> 국가콩쿠르 수상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 9학년생들 2명이 제2회 국가콩쿠르 <2017학생>에서 수상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콩쿠르의 결승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알렉세이 카리놉스키와 울리아 김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학생 170명과 경쟁했다. 참가자들은 사회활동, 스포츠, 창작활동과 교육 4가지 부문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주중양도시 제22학교 학생들은 77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교육부문에서 실력을 과시했다.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테스트와 자연과학, 언어학, 물리-수학, 인문학 부문에서 한층 난이도가 높아진 질문에 답하해야 했다. 다음은 연구과제의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쉽지 않은 주제를 선택했다. 알렉세이 칼리놉스키는 사할린주에서의 주민들의 이주 원인을 밝히며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고 울리아 김은 유전적 상속에 대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콩쿠르 개최는 재능청소년 지원 및 개발의 지역 간 센터에 의해 이뤄졌다.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Ученик года-2017»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девятиклассники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втор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Ученик года-2017».

В финал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Красноярске, Алексей Калиновский и Юлия Ким конкурировали с 170 ребятам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Участники боролись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которые оценивали их достижения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порте,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учебе. Сахалинцы из школы №22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ыступали в последней номинации,

которую выбрали еще 77 учащихся.

После отборочного тура ребятам предстояло выдержать тест и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повышенной сложности из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го, филологического,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ого 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циклов. Затем состоялась публичная защит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выбрали непростые актуальные темы: Алексей Калиновский выяснял причины оттока населения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едложил несколько решений проблемы. Юлия Ким презентовала проект по наследованию генов.

Конкурс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м центром развития и поддержки одаренной 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사할린, <대중 축구의 날>을 경기와 공연으로 기념

5월 20일 전 러시아 60개 지역에서 <대중 축구의 날>전국축제가 펼쳐진다. 올해는 처음으로 사할린에서 이 행사가 개최된다. 주중양도시의 여러 행사장들과, 그리고 아니와와 코르사코브구역들에서도 축구시합이 열릴 예정이다.

<스파르타크>경기장(고리키거리, 7번지)은 개최될 축제의 중앙광장으로서 11시에 <대중 축구의 날>의 공식 개막식이 시작된다. 프로그램에는 클럽 <사할린> 유소년선수들의 시범공연, 축구전문팀의 축구교실, 주예술단들의 공연, 그리고 연령과 성별 관계없이 아마추어팀들의 친선경기가 계획되어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8중학교 운동장에서는 11시에 8*8형식의 아마추어 축구시합이 열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중학교 운동장에서는 11시에 스포츠 베테랑들의 친선경기가 있다.

축구의 축제는 트로이츠크예에서도 개최되는데 보육원에서 12시에 본 기관의 학생들 가운데 친선경기가 열린다.

13시에는 <올림피아 파크>스포츠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2007-2008년생 아동팀끼리의 친선경기와 유치원생들의 미니축구 경기가 펼쳐진다.

전국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우승자들과 수상자들에게는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의 컵과 메달과 상장으로 시상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제과류 상품과 참가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의 홍보실이 전했다.

"День массового футбола"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ят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и концертом

20 мая в 60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ройд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естиваль "День массового футбола". В этом году он впервые придет на Сахалин. Сразу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лощадк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 также Анив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ах пройдут футбольные встречи.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стадион "Спартак" (улица Горького, 7), именно там в 11:00 начне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Дня массового футбола". В программ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ОГАУ "ФК "Сахалин", мастер-класс о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футбольной команды, концертные номера о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товарищеские встречи команд любителей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и пола.

На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е школы №8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йд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футболу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в формате 8*8. Начало в 11:00.

На стадио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3 пройдет товарищеский турнир ветеранов спорта, начало также в 11:00.

Праздник футбола состоится также и в Троицком. В 12:00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етского дома пройдет товарищеская встреча между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учреждения.

В 13:00 в спортив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центре "Олимпия Парк" пройдут товарищеские встречи между командами детей 2007-2008 годов рождения и игра по мини-футболу среди дошкольников. (8면에 계속)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들의 사할린 소감

이경희 이사장:



"사할린은 미지의 나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많이 발전했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 밝고, 활발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고 위로도 됩니다.

이런 국제 컨벤션을 개최함으로써 저희로서는 큰 기쁨이고 저희들의 에너지를 사할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진화 차기 이사장:



"사할린에 대한 역사는 조금 알고 있었지만 꼭 오고 싶었던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1세이신 장차분 할머니의 말씀은 가슴에 와닿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서 모든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저희로서는 최고의 보람이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 현장, 문화 파괴자들 들어

포자르스크예촌 근처, 유즈노사할린스크-홈스크구간 도로 56킬로미터 부근, 낮은 언덕에 세워진 한인 피살자 27인 추념비. 1945년 8월 살인 사건으로 6개월 아이부터 어린이, 남성들과 여성 27명이 일본인들로부터 학살을 당했다. 이를 추모하기 위해 1996년에 한국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가 사할린동포들과 함께 작은 비를 세웠다. 그러나 홈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리가 쉽지 않았다.

2010년에 한국 로타리 클럽, 사할린한인사회 활동가, 주두마 의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홈스크 로타리 클럽 회원 등은 이 현장을 제대로 정돈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2012년 10월에 추념비까지 포석을



깔았다. 그러나 이번 5월 8일 누군가에 의해 포석 7평방미터가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상식도 없는 야만인이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로타리 클럽 회원들을 비롯해 이에 염려하는 분들 몇 명이 지난 토요일 현장을 찾아 별초

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하며 고민했다.

지난 16일(화)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에서는 이 문제로 회의가 소집됐는데 이에 로타리 클럽 회원, 사할린주두마 정 왈레리 의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일단은 이 사실을 주내 언론에 널리 알리

도록 하고 어떤 처리작업을 취해야 할지 생각하기로 했다.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이 사실을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념비 현장 정돈작업에 나서면서 차후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순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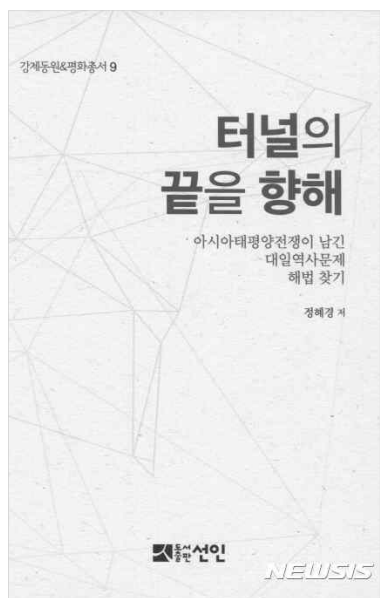
일본에 '책임을 묻는 일'... '터널의 끝을 향해'

역사학자 정혜경(57)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11년간 조사과장으로 근무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당국이 관리한 러시아 사할린의 조선인 노동자 846명에 대해 2015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 징용'을 공식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일본군위안부 12·28합의'로 경색된 한일관계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펴낸 '터널의 끝을 향해'가 증거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남긴 대일역사문제 해법 찾기'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에서 대일역사문제해결의 출발점을 재일사학자 강덕상의 입론에 근거, '사실의 무게'를 알기 위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노력이라고 전제한다.



2008년 제1차 일본 도쿄 유엔사 안치 한인 유골 봉환 후 한국과 연대한 현지 양심세력 등 오랫동안 역사의 거울을 닦아온 양심적 일본 시민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정 씨는 이와 함께 복원해야 할 한일관계의 꽃대를 '김대중-오부치 한일공동평화선언'으로 설정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처음으로 공식 명문화했다.

정 씨는 "한국 시민사회가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과 '가해자의 양심을 두드리는 일'을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일본을 상대로 제대로 촉구하고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터널의 끝을 향해'는 한일연구자와 시민들의 플랫폼이자 국내 대표적인 일제강제동원 연구센터인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가 발간한 아홉 번째 평화총서다.

(서울=뉴시스)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어머이하고 한 고향사람 중에 1942년인가 43년인가, 사할린에서 친도열도★로 징용간 이가 있었어요. 전부 2백여 명이 끌려갔대요. 하루는 이 양반이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야. 그래 사할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가라 하드래. 진짜 보내주더라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군이 전쟁에서 진 다음에 거기 있던 2백 명을 전부 바다에 몰살시켰대. 밤에 조선인들만 배에 실어가지고.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만 배에다 몇십 명씩."

★— 쿠릴열도: 사할린 동부 섬들.

'조선인 홀애비'들의 희망 없던 삶과 죽음

젊은 시절 탄광과 벌목 일을 배워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간 한문형 선생의 부친은, 해방 전 남사할린 북쪽 지역인 우글레고르스크의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가족을 데리고 코르사코프로 내려왔다. 코르사코프는 남사할린 남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배로 불과 몇 시간이면 홋카이도에 닿을 만큼 일본과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인지 해방 당시 항구 주변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몰려든 일본인과 한인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일본인 중 일부는 일명 도둑배를 타고 몰래 항구를 빠져나가기도 했으나, 가난한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치 보며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고. 하지만 그 '때'는 끝내 오지 않고 만다. 소련군이 곧 해상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사할린이 안정을 되찾은 시점과 일치한다. 그 시기에 일본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할린을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40년대 말에는 일본인을 실어 나르기 위한 귀환선이 코르사코프 항에 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귀환 대열에서 배제된 한인들은, 그저 일본인을 가득 실은 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속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김임순 - "일본 사람들 다 가는데 못 가니까 조선인 홀애비들은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사람은 죽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가고. 그런데 장가를 갈래도 여자가 있어야 가지. 그때 한인들은 다 일제 때 모집으로 온 사람들이라 홀애비가 많았어. 러시아 여자들 만나면 돈만 다 뜯기고. 대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지 뭐."

그분들 장례는 어떻게 했나요?

김임순 - "이웃에서 다 했지. 여기(한국)로 말하면 복지관이 없어서 그냥 친하게 맺기며 지낸 젊은 사람들이 해줬어. 그분들이 우리 집하고도 친하게 맺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언젠가 낫선 이름이 적힌 편지가 한문형 선생에게 배달된 적이 있다. 알고 보니 그는 선생이 2대에 걸쳐 초상을 치러준 집안의 자식이었다.

한문형 -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했드라고. 그때는 한자 읽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다들 편지를 나한테 가져왔어요. 읽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누군데 찾고 있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봉투에 적힌 대구 주소로 답장을 했어요. 내가 당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초상을 치른 사람이다, 묘를 만들어 댔으니 와서 봐라. 그랬더니 와서 모시고 가는데 3년 걸리더라고."

춤추다 '눈 맞은' 2세들의 연애담

한문형, 김임순 부부는 모두 사할린 2세로, 아무래도 모집이나 징용을 통해 사할린에 건너간 1세대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뭘지 모를 활기와 여유가 느껴진다 할까. 물론 낫선 타국에서 피지배층 민족으로, 또 소수민족으로 견뎌야 하는 삶이란 2세에게도 결코 녹록치 않았지만, 두 사람의 기억 한편에는 1세 분들에게서 들을 수 없던 '재미난'이야기들이 저장돼 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역시 연애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김임순 - "코르사코프에서 춤추러 다니다가. 둘이 서로에게 반했으니 같이 다녔겠지. 우리 클 때는 춤이 유행이었거든. 우리 윗세대야 춤이란 걸 몰랐지. 하지만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부모들에게 거짓말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애인도 만나러 다니고 그랬어."

그때도 춤출 때가 있었어요?

김임순 - "그럼. 도시에는 그런 때가 있었지. 저녁 8시가 되면 음악이 시작되고, 그럼 돈 내고 들어갔어. 그때는 참 재미 좋았는데. 하하."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Мы с вами рассмотрели, какие сословия существовали Чосон в период, который в европейской истории обычно зовется периодом Средних веков (как вы сами понимаете, европейские названия с трудом можно применить к Азии, например, само понятие «Средние века», то есть такие важнейшие для стран Европы события как падение Западной Римской империи в V в., Велики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Возрождение, Просвещение, Реформация мало значили для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ли далеко от них). Что же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Чосон того времени?

Ремесло и торговля были развиты очень слаб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Европой, и даже с Китаем и Японией. Основным занятием корейцев было земледелие, активно поощряемое государством. К торговле вообще конфуцианское сознание относилось с большим подозрением, и даже ремесло было не в чест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нфуцианских идеологов эти занятия были побочными, отвлекали народ от земледели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увлечению ненужной роскошью. До конца XVII в. в Корее даже не было денег – при том уровне торговли они был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нужны, люди спокойно обходились натуральным обменом, изредка используя в качестве эквивалента денег ткани или рис.

Следуя этим идеалам, власти сознательно ограничивали развитие торговли, в особенности частной торговли – было запрещено создание постоянных рынков, для торговли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олучать лицензии, государству активно вмешивалось в ценообразование. В стране действовали «шесть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имели монопольные лицензии на право торговли, практически подмяв всю ее под себя.

Как мы знаем, в Европе именно торговля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политическому, а поскольку торговля в Чосон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было, то и единственным крупным городом того периода являлся Сеул, население которого в XV–XVII вв. составляло 100–1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Другие города были намного меньше, население их не превышал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человек.

Также не очень хорошая ситуация у Чосон была с армией. Армия состояла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из мужчин-простолодинов, а государство, следуя конфуцианской модели, содержало лишь очень небольшую армию, в случае нужды проводя мобилизацию. В условиях того времени подобная система была очень неэффективной – корейская армия с легкостью рассеивалась и японскими самураями, и отрядами кочевников. Впрочем, подобная политика была в какой то мере оправдана. Практически до середины XIX в. Корея вела очень мирную жизнь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Имджинской войны в конце XVI в.) – страну тревожили лишь нечастые набеги кочевников, рейды японских пиратов и локальные крестьянские бунты.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армия воспринималась как очень дорогостоящее и ненуж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теряла боеготовность и превращалась по сути в полицейские силы. Постепенно от всеобщего призыва отказались, дав крестьянам право откупаться от военной обязанности, что он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 делали. Позже Корея дорого заплатит за свое миролюбие и нежелание содержать мощные военные сил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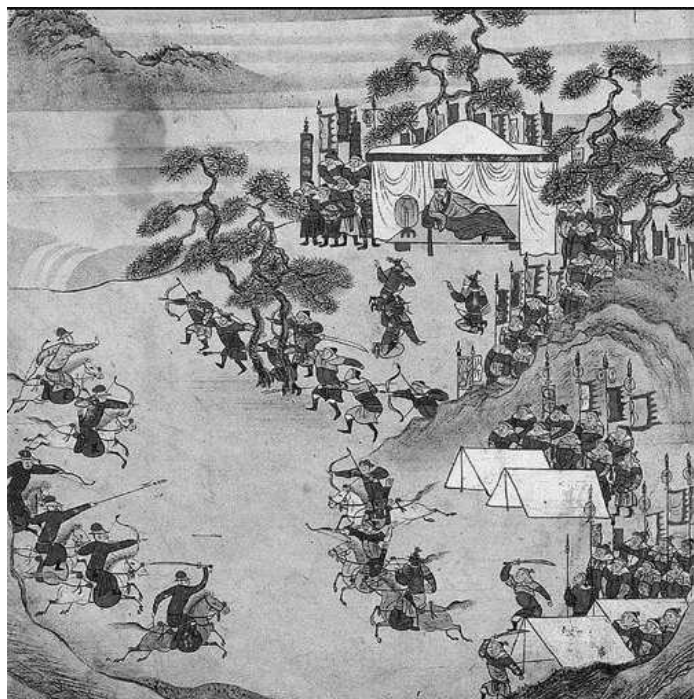


Рисунок 1. Средневековое изображение битвы с кочевникам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Вандалы украли брусчатку с территории памятника корейцам близ Пожарского

В конце рабочей недели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аздался звонок.

- С дорожки, ведущей к памятнику безвинно убиенным корейцам, украли брусчатку. Семь метров, - сообщила одна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тари-клуба.

Этот небольшой обелиск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 1996 году в память о 27-ми корейцах, среди которых мужчины, женщины, дети (в том числе 6-ти месячный младенец), были убиты японцами в августе 1945 г. Расположен он близ села Пожарское, на 56-ом километре дорог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В связи с удаленностью памятника от обоих городов, ухаживать за ним было непросто, но общественники старались.

В 2012 году силами ротариан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Холмска, а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территория, на которой находится памятник, была благоустроена, выложена дорожка из брусчатки.

И вот, такая новость.

- Мы очень возмущены такими действиями неизвестных лиц и написали заявление в полицию, чтобы возбудить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и найти подозреваемых, — сообщили в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е,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ротарианц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просто неравнодушные граждане.

В минувшие субботу члены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амятника выезжали на место происшестви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кроме пропажи брусчатки, был поломан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щит со сведениями о памятнике.

16 мая в офис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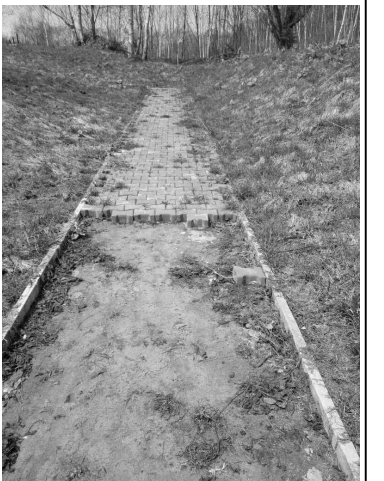
собралась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и рассмотрела вопрос, какие меры предпринять, чтобы уберечь этот объект от вандализма в будущем.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у в районе памятника планировалось создать беседку, небольшую парковку, озеленение, посадить новые деревья и установить урны со скамейками, после чего оградить территорию. Из-за действий вандалов сейчас весь процесс откатывается назад, и срок его реализации увеличивается.

— Не ожидали, что такое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Опять придется вкладывать деньги, чтобы заполнить этот тротуар, - говорят члены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чт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амятника безвинно погибшим корейским жителям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Пожарское) завершится до конца 2017 года.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приглашает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помочь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субботнике.

Виктория Бя.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наград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турн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В Москве завершился III всероссийский турнир по олимпийскому тхэквондо WTF "Патриот". Во Дворце борьбы имени Ивана Ярыгина состязались свыше 1000 участников из 40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ились среди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юниоров и юниорок,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ветеранов спорта и начинающих спортсменов, а обслужива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судь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атегорий. Всего было разыграно 116 комплектов наград.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ля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 удалось завоевать медали всех достоинств.



— Отлично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сакова. Подопечные тренера Сергея Ли завоевали две золотые, серебряную и три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турнира стали Максим Ли и Эмилия Ли. Валентин Чикунов —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Владислав Беган, Александр Ким и Артем Степа-

нов —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сты, — рассказал старши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нис Ким.

Не менее успешно проявили себя воспитанники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СДЮ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ладислав Федоров и Даниил Тка-

ченко завоевал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Чан Хен Чер — серебряную, Альберт Чан, Виктория Солдатикова и Георгий Боровиков — бронзовы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активе островитян четыре золотые награды, две серебряные и шесть бронзовы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Рацион корейцев меняется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южнокорейцев всё чаще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завтраков и предпочитает полуфабрикаты. Опрос на эту тему был проведён среди 1.011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59 лет. 16 мая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его результаты. Выяснилось, что 96%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 пропускают обед и ужин. Но относительно завтрака отметка достигла лишь 65,3%. Среди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29 ле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лишь 59,2%, а среди респондентов, живущих в одиночку, - 53,5%. Кроме того, в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от 20 до 29 лет 9,4% указали, что употребляют полуфабрикаты или обработанны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С возрастом эта отметка сокращается. У респондент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50 до 59 ле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лишь 0,6%. Вместе с тем, 98% респондентов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здоровья нужно питатьс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о.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что граждане РК понимаю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 хотят вести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в том числе правильно питаться. Но в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поддерживать здоровый рацион не получается.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Б ООН осудил ракетное испытание, проведённое Пхеньяном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судил очередное ракетное испытание, проведённое Пхеньяном 14 мая, пригрозив СК новыми санкциями, если она продолжит провокационные действия. 15 мая члены Совбеза приняли заявление для печати, в котором выразили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крайне дестабилизирующим поведением» Пхеньяна. Совбез потребовал от СК не проводить новые ракетные и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а также немедлен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конкретные усилия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документ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члены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должат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ситуацией, подтвердив своё намерение добиваться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итуации с помощью диалога. Пуски ракет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зработке средств доставк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усиливают напряжён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выразил сожаление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тратят средства на создание оруж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граждане страны испытывают огромную нужду.

Сеул предостерег Пхеньян от неверных решений

В изменившихся условиях недопустимо принимать неверные решения. Та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и запус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проведённый 14 мая. 15 мая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Ли Док Хэн заявил, что РК разделяет общее мнение о том, что провокации Севера представляют серьёзную угрозу для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воскресенье, сразу после запуска Севером ракеты,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вёл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удив действия Севера. Провокацию Пхеньяна осудило всё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в том числе Китай,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в конце июня

В конце июня в Вашингтоне состои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б этом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во вторник, 16 ма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в Сеуле главы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по вопросам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Чон Ый Ёна и директора восточноазиатских программ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ША Мэтью Поттинера, прибывшего с визитом в РК.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зда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Её участник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ещё ряд контактов для более детального обсуждения предстоящего саммита. По словам пресс-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Ён Чхана, стороны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вместно работать над полным «решение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рименяя новые и практические пути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с целью вынудить его отказ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роме того, США подтвердили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СК страдает от недостатка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Четыре из десяти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10 млн. человек,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отсутствием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16 мая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В доклад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FAO) и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ОН (WFP)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4,4 млн. северян или 17% населения КНДР находятся на грани нехватк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22% высказываются опасения, а 39% испытывают нехватку питания. Эксперты указывают, что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являются не природные катаклизмы, такие как наводнение и засуха, а неспособность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Севера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граждан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едложил меры борьбы с микропылью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едложил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борьбу с микропылью в атмосфере. В ходе посещения 15 мая одной из начальных школ Сеул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орядился приостановить на месяц, начиная с 1 июня, работу восьми угольн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введённых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более 30 лет назад.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анный срок будет увеличен до четырёх месяцев. 10 устаревши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президент пообещал не закрывать, а перевести на природный газ.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РК эксплуатируются 59 угольн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на долю которых приходится 14% микропыли, поступающей в атмосферу. Мун Чжэ Ин дал указание создать орган по проблеме микропыли. Во всех школах страны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датчики уровня микропыли, на закупку которых выделят 60 млрд. вон (54 млн. долларов).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установить воздухоочистители в помещениях.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после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ноц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чнётся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более конкретных мер борьбы с микропылью. (RKI)

В Сеуле наградили 3692 работника образовани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KBS Hall прошла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3692 отличившихся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общили, что большие усилия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закрепление в обществе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разумевающей полную самоотдачу работников этой сферы. Для э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работать над повышением моральных качеств и достоинства учителей. В этот день в стране отметили День учителя. 7,5% или 450 школ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отменили занятия, посвятив время выражению благодарности учителям. (KBS World)

В «золотые выходные» выросла сумма расчётов корейцев за рубежом

В начале мая во время «золотых выходных», когда в РК отмечался целый ряд праздников и событий, сумма расчётов, проведённых южнокорейцами через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в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ах,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осла.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в течение 11 дней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22,8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64,8%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Всего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43 тыс. расчетов. Эта отметка выросла на 76,7%. Во многом, такой рост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на этот раз «золотые выходные» оказались 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ми, чем в 2016 году. Между тем, в РК сумма расчетов выросла лишь на 12,6%.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расходов граждан РК зафиксирован в Японии – 4 млн. 188 тыс. долларов, в США – 3,5 млн. долларов. Отметка относительно Китая сократилась. Причина этого состоит в конфликте двух стран вокруг размещения в РК комплексов ПРО THAAD. (KBS World)

19th Overseas Koreans Literary award Contest

제19회 재외동포문학상

2017.4.1 SAT ~ 5.31 WED
| 한국시간 기준 |

응모 자격

성인부문
• 거주국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부문
• 거주국 5년 이상 체류한 초·중·고 재외동포 청소년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 불가

작품 주제

성인부문 | 자유주제
청소년부문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 내가 사는 도시(지역) 소개
- 한국(모국) 방문 또는 한국어 학습 경험담
- 자랑스러운 한국인, 전반적인 한국 및 재외동포에 관한 주제
- 기타 자유로운 주제(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재외동포 관련) 등

공모 분야

성인 부문

분 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시	3-5편	제한없음
수필	3편 이내	글자수 4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4매 내외
단편소설	3편 이내	글자수 6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13매 내외

청소년 부문

구 분	분 야	출품편수	1편당 원고분량
중·고등학교	글짓기	3편 이내	글자수 3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3매 내외
초등학교	글짓기	3편 이내	글자수 2천자 내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작품용모서리 2매 내외

* 이밖표한글 작성되어야 하며, 원고분량 80%이만 또는 150% 이상은 탈락
* 작품용모서리는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수는 원고지 또는 작품용모서리 기준 중 한 가지 반드시 충족

시상내역

성인부문
대상(3명) | 300만원-상패, 장르별 1인
우수상(6명) | 200만원-상패, 장르별 2인
가작(9명) | 50만원-상패, 장르별 3인

청소년부문

- 중·고등학교**
 - 최우수상(1명) | 100만원-상패
 - 우수상(2명) | 50만원-상패
 - 장려상(3명) | 30만원-상패
- 초등학교**
 - 최우수상(1명) | 100만원-상패
 - 우수상(2명) | 50만원-상패
 - 장려상(3명) | 30만원-상패
- 한글학교**
 - 특별상(2개교) | 200만원-상패

* '청소년 부문'에 응모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한글학교에 수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Tel. +82-2-3415-0097 www.korean.net

주최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 - **476 руб. 28 коп.**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антивоенной оперы чешского композитора Ганса Красы «Брундибар»

В постановке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Чехова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учащиеся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и музыкальных шко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Долинска, а также городской камерный оркестр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играна Ахназаряна. Режиссер - Мстислав Пентковс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оекта «Брундибар» в России.

Опера о детской дружбе была написана в 1938 году. Ее своими силами поставили малолетние узники концлагеря Терезиенштадт, который нацисты использовали 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целях -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миссиям, чтобы создать у мир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ллюзию того, что жизнь узников вполне хороша. Опера выдержала 55 представлений в концлагере. Она стала актом скрытого коллективн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узников, а образ злого шарманщика Брундибара, получившего внешнее сходство с Гитлером, послужил воплощением нацистского режима.

В 1944 году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съемок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го фильма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новая сценическая редакция «Брундибара». Сохранившаяся пленка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документом, зафиксировавшим чудовищную мистификацию нацистов.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лагеря делегацией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съемок финальных сцен фильма узники начали вывозить в Освенцим и другие лагеря, где их жизнь трагически оборвалась. Из 14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ошедших через Терезиенштадт с ноября 1941-го года по май 1945-го, выжило менее 20 тысяч.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трогательная музыкальная история о детской дружбе стала ярким призывом к миру, символом памяти о детях, ставших жертвами фашизма и терроризма. Либретто переведено на многие языки. Премьеры состоялись в США, Канаде, Германии, Италии, Англии, Австрии, Испании, Франци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остановку посвятили годовщине снятия блокады Ленинграда. Во Владикавказе опера была исполнена в память о детях Беслана, ставших жертвам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акта.

Постановку на сцене сахалинского Чехов-центра осуществили сил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ая детская филармон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напряженной работы, длившейся более года, было создано зрелище, которое не оставило равнодушным никого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зрителей.

Массовый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забег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тарт (перекресток улиц Горького и Пуркаева) вышли более тысячи ста человек. Это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и Невельска.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забега от трех до семидесяти лет.

Взрослым бегуна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на выбор три дистанции: 2,5 километра, 5 или 10.

- Мы даже не ожидали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забеге. Приятно осознавать, что в спорт на Сахалине вовлечено так много ж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Александр Кан.

Участника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и малыш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обежать 500 метров. На эту же дистанцию вышла трехлетняя Алина Кузнецова.

- Дочь у нас с рождения очень подвижная и шустрая. На месте не сидит ни минуты. Стареемся направлять ее энергию в полезное русло. Услышали о том, что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такая акция, реш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Пробежала, правда, только полпути. Устала. Но зато теперь у нее есть своя первая медаль,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мама Алины.

Для гостей и болельщиков неподалеку на площадке у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ристалл» работ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площадки. Зона технологий с трансформерами и очками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Была также организована детская зона с аниматорами и ростовыми куклами. Самые активные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состязались в ловкости и меткости на полосе препятствий и выясняли, кто сильнее в перетягивании каната. Проголодавшиеся могли угоститься пловом и чаем с пирожками.

По окончании забег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медали. Призеры - подарки и сувениры.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ям на дистанциях 2,5, 5 и 10 километров были вручены денеж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После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Кристалл»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оттачивают будущие медсестры и медбрат

12 мая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медицинской сестр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базов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профмастерству. В состяз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ве команды 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Айболиты» и «Лейкоциты».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нты показали знания по теории. На втором, практическом этап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авыки работы с пациентами, находящимися в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 Положение Симса является промежуточным между положением лёжа на животе и на боку. Манипуляция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определённ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 отметила, приступая к практическому заданию, Анна Шабалина из команды «Лейкоциты».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испытания в аудитории устано-

вил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ую кровать, в роли пациентки тоже студентка первого курса. В жюри правильность каждого действия фиксировали в анкетах. Второй команде в том же интерьере досталась другая задача.

— В колледже ежегодно проходят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их основная цель - привить любовь студентов к своей будущей профессии, воспитать чувств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Ребята могут показать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А мы смотрим на своих студентов со стороны, отслеживаем, как они усвоили пройденный материал,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естринского дела Екатерина Соловьёва.

— В будущем собираюсь работать на скорой помощи. Для меня эт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испытание. Не думаю, что очень принципиально, кто победит. Мы должны показать своё стремление и желание работать,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людям, - обозначил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студент Антон Петров. Он единственный будущий медбрат среди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конкурсе.

Действия ребят оценивали не только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в жюри пригласили медсестру невр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Ф.С. Анкудинова. В перерыве между состязаниями она устроила для студентов мастер-класс.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из своей работы. Один из них - скринингов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функций глотания.

Качество знаний, получаемых в стенах заведения, остается стабильно высоки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и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но и отзывами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местах. Для всех выпускников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в лечеб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егиона. Областная кадровая программ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для них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Подъёмные» выплачиваются медсестрам и фельдшерам, приезжающим 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за последние четыре год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на должности средн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персонала пришло работать более 450 человек.

Вакцинацией от клещевого энцефали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охвачены 3000 дете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рививку от клещевого энцефалит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3 000 детей. Вакцина приобретена за счё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епарат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дет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тдыхать в загородных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ях.

— Вакцинация от клещевого энцефалита происходит в три этапа, по определённой схеме. Если человек не успеет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в этот сезон, можно начать проводить эту процедуру осенью, - рассказала ведущий совет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организаци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здрава Валерия Афанасьева. —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нужно соблюд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начиная от вакцинации д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экипировки при походе в лес. Заболевание может иметь много осложнений, вплоть до летального исх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клещевым энцефалитом. Поэтому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ыделении средств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иммунизацию детей, направляющихся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Объё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 5,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репарат распределяется по лечеб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детям прививка ставится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информированного согласия родителей.

Помимо вакцины закуплена и партия иммуноглобулина. Этот препарат назначают после укуса клеща, для экстренн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Иммуноглобулин уже распределен между лечеб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регион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направлена в детскую областную больницу, сюда часто обращаются родители малышей, которых укусили клещи.

Для остальных категорий населения, желающих обезопасить себя от укусов клещей,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ививка на платной основе. Ее можно сделать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На некотор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вязанных с работами в лесной зоне, в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ых очагах, вакцинация оплачивает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аботодателя.

Всего в области за сезон в среднем фиксируется 2-2,5 тысячи обращений граждан с укусами клещей. За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жалобами к специалистам обратились 26 сахалинцев, случаев клещевого энцефалита и боррелиоза не выявлено.

— Число обращений стало расти во время май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Пик приходится на июнь-июль. Не меньше 60% связано с детьми, - привела данные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надзора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Ковтонюк. — Лучше всего, когда клеща удаляет специалист. Когда снимаешь ег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то желательно отдать его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на наличие инфекци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ся в центр гигиены и эпидемиологии, в районах - в филиалы центра.

Специалисты напоминают, что сейчас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до уделять и неспецифиче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е.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пелленты для отпугивания насекомых, одевать защитную одежду. Находясь в лесу, каждые два-три часа, надо осматривать себя и близких на наличие клещей.

Начинается подбор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будущей молочно-товарной фермы в селе Раздольном

Объекты нового крупног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торое создается на базе совхоза «Корсаковский»,

быстро обретают законченные очертания.

Молочно-товарная ферма в селе Раздольном рассчитана на 1000 голов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основного стад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едется монтаж металлоконструкций и сэндвич-панелей, заливка бетонных полов, прокладка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В конце мая начнется обустройство сист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е дои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 ферме, уже изготовлен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его отправят на остров.

А неподалеку от фермы возводится агрогородок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нового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50-одноэтажных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домов. В каждом из них - по три комнаты, общая площадь - почти 105 метров. Плюс с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и хозяйственные постройки.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агрогородка - 20 домов. 10 из них уже построены. Еще 10 домов сейчас достраивают. Попутно ведется прокладка наружных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В март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чалось возведение 30 домов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ейчас уже изготовлены коробки всех зданий, 80 строителей накрывают их крышами. В дальнейшем они приступят к монтажу внутренних сетей и отделочным работам.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бывав на стройке,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подрядчиками задачу -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снижать наработанные темпы работ. Уже в сентябре-октябре сюда придет первая партия животных - 550 породистых коров из Беларус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их в достатке качественными кормами, совхоз «Корсаковский» приступил к севу кормов. Уже обработано около 450 гектаров.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о, что уже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начинать подбор грамот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меющих опыт работы на оборудовании, которо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а новой молочно-товарной ферме. Также предстоит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дготовку работников совхоза,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на нов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Для всех этих людей в Раздольном создаются благоприятная обстановка - удобное и просторное жилье,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труда.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сегодня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в нашей области.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кадрами отрасль, будет внедряться обучение по нов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техникуме.

По расчет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овая ферма поставит к столу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200-300 тонн свежего молока.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изводство будет только нарастать.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привлеч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медиц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трудоустроено в первич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звено

Итоги работы по укреплению первич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вена в 2016 году подве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строг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еч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шла о развитии амбулаторно -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Пак, сейчас такого рода помощь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 312 участках, из них 177 - терапевтические, 123 - педиатрические, а также 12 участков врачей общей практики. Скорая помощь в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ся одной станци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двадцати пятью отделениями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Бригады скорой выполняют до полутора тысячи вызовов в сутки.

- В 2016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десять новых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ов, а также амбулатория на сто двадцать посещений в день в Троицком. Для нужд региона приобретено восемь передвиж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маммограф, три компьютерных томографа, офтальмологический микроскоп, семь аппаратов УЗИ. В 2017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ещё 6 моби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Пак.

Министр добавил также, что за два года из 315 привлеч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специалистов, 190 трудоустроено в амбулаторно-поликлиническое звено. Всем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мер поддержки: от подъемных (размер выплат зависит от района) в который прибывает специалист, до служебного жиль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регионе оказываются клиническим интернам, студентам вузов,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совещании отмечено также развитие службы стационаров и патронажа на дому для инвалидов,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Более 2500 граждан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ежегодно получают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 домашних условиях.

На совещании было обращено внимание на существующие проблем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 низкая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 граждан о том, какие услуги они вправе получить в том или ином лечебном учреждении, а также сложности с электронной записью. Взять талон к врачу, не выходя из дома, по-прежнему бывает непросто. Не хватает развернут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де и как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такую услуг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просил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должна быть вами усилена, - обратился к руководству минздрав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고려인 관련단체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 발족 17일 국회서...고려인특별법 개정도 추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국내에서 기념행사 준비와 관련법 개정 추진 등 고려인 공동체 발전을 지원하는 단체가 출범했다.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장 조영식), 광주광역시 고려인협동조합(이사장 이천영),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 등 고려인 관련 단체들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사업 위원회'(기억과 동행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상임대표는 도재영 이사장이 맡고 공동대표에는 김경협 의원, 조영식 이사장, 마의금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안산) 대표,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장, 조남철 이사장이 선임되었다.

발족식은 김경협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발족 선언문 발표, 사업 소개, 새 정부에 바라는 고려인의 편지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15일 미리 발표한 발족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대인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기억해도 민족의 비극인 고려인 학살은 잘 모른다"고 지적한 뒤 ▲고려인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한 고려인 명예회복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특별법) 개정 ▲고려인이 한

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발족식이 끝난 뒤에는 고려인과 애환을 함께해온 고려극장 원로 가수과 배우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고려아리랑-천산의 디바' 시사회가 열렸다. 다큐멘터리 실제 주인공 방타마라 씨가 김소영 감독과 함께 참석해 관객과 대화를 나누고 공연도 펼쳐졌다.

기억과 동행위 상임대표로 내정된 도재영 이사장은 "강제이주 80년을 계기로 경기도 안산과 광주광역시 등지에서 활동하는 동포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게 됐다"면서 "국내 고려인 자녀들도 성인이 된 뒤 한국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려인의 정착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억과 동행위는 6월 중 고려인특별법에 관한 고려인 경청회를 시작으로 고려인 알기 및 응원 릴레이 캠페인, 고려인의 증언을 기록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80년 전 강제이주가 시작된 9월 9일까지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별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9월 17일에는 국내외 고려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고려인 대회를 안산문화예술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1

말하기 대화를 성공의 기회로 삼자

(전화의 계속)

(2) -(으)로 인해서, -(으)로 인하여 "из-за...", "благодаря...", "по причине..."

Выражает причину. Широк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официальной речи,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текстах.

Примеры: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서 금년은 무역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이다.

→ По причине нечеткого экспорта, осуществляемого круп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торговый дефицит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неизбежным.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 Весь мир перевернулся из-за дела по спекуляциям в сфере недвижимости, в котором был замешан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1966년 지진으로 인해 타슈켄트는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 Из-за землетрясения 1966 года Ташкент был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разрушен.

(3) -(으)ㄴ에 따라서, -냐에 따라서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имеры: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Результат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кто говорит.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Я буду строить дальнейшие план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инятого решения.

본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나오에 따라 예산이 확정될 것이다.

→Бюджет будет утвержден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одобрения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4) -(으)ㄴ직하다. "казаться...", "выглядеть..."

Примеры:

과일이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Фрукты выглядят очень аппетитно.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믿음직해 보인다.

→Как не смотри, на он все же выглядит надежным человеком.

그 사람이 갔음직한 곳은 다 찾아보았다.

→Я искал везде, куда он мог уйти.

(5) -(으)면 얼마나 - 겠어요? "ну насколько..."

Примеры:

그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Даже если он умный, то насколько он умный?

러시아의 겨울이 춥다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Ну насколько русская зима холодная?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Как бы он ни усердствовал, ну сколько он сможет сделать?

■ 쓰기 연습 Письменные упражнения

보기와 같이 '-(으)로 삼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선생님, 교아, 양자

→ 선생님은 교아를 양자로 삼았다.

(1) 실패, 거울, 열심히 노력하다

→

(2) 하늘, 지붕, 떠도는 나그네

→

(3) 우리 선생님, 교직, 천직, 일생 동안, 학교, 일하다

→

(4) 그녀, 딸, 친구, 이야기하곤 하다

→

(5) 이제 와서, 그것, 문제, 필요없다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외국인 체류유형 다양화...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요"

국내 외국인의 체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민자의 한국 적응을 돕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지 '한국이민정책학보' 최신호에 따르면 황민철 서울기독교대학교 조교수는 논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평가'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난민, 외국인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 외국인이 있는 만큼 일률적 프로그램 대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이주민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 한국어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2009년 시작해 지난해 전국 300여 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이주민 참여 인원은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09년 1천331명에서 2016년 2만8천556명으로 21.45배가 됐다. 이중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67.7%에서 53.2%로 줄어든 반면 유학생 규모는 122.5배로 늘어나는 등 체류 유형이 다양해졌다.

논문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에도 체류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대신 일률적 프로그램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체류 외국인의 유형별 조사를 토대로 학습능력, 동기, 성향을 파악해 이에 따라 교육 교재 개발, 전담 교육인력 배치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통합정보망의 접근성 개선, 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 사회통합 재정 확대 등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 '제16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 시작 9월 3일까지...한상대회 홈페이지 통해 등록 가능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재단 주최 '제16차 세계한상대회' 온라인 참가접수가 5월 15일(한국시간 기준)부터 시작됐다.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For better Hansang, For better Korea)'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총 3,500명(국내 1,000명, 해외 2,5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경제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한 마당이다.

한상 리더십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한상&청년 Go Together!,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밉글링 등 행사가 사흘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사전등록은 9월 3일까지 세계한상대회 홈페이지(www.hansang.net)를 통해 가능하다. 등록비는 사전등록 시 현장등록비 17만원(미화170달러)에서 인하된 12만원(미화120달러)이며, 등록비 수입의 일부(1인당 3만원/30달러)는 국내 소외계층 대상 장학사업 등에 기부된다.

숙박은 개인 선택 사항이며 다만 참가자의 편익을 위해 별도 숙박 대행사를 통해 호텔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 (Tel. +82-2-3415-0052, Registration1@ok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외동포신문)

